

## 《동인론시절구》에 반영된 신위 문학비평의 내용

강 복 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으로 문학은 평론에 의하여 총화되고 평가되어왔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42페이지)

19세기의 사실주의시인이며 비평가인 신위(1769—1845, 호; 경수당 또는 자하)는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을뿐아니라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떨친 우리나라 력대의 이름있는 문인들과 그들의 작품을 평가한 운문형식의 비평인 《동인론시절구》(35수)를 창작하였다.

《동인론시절구》(35수)에서는 후기신라의 최치원으로부터 조선봉건왕조의 김상헌에 이르기까지 800년간의 력사적인물 5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품의 우결함과 시문학사조 및 문학현상을 평하고 작품창작과정의 일화를 그대로 시화하였으며 매 시편말에 주석을 주었다.

《동인론시절구》에 반영된 신위의 문학비평의 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이고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해외에까지 널리 파시한 시인들에 대하여 내세우고 적극 찬양한것이다.

대표적으로 제1, 2, 24, 26, 28, 35수 등을 들수 있다.

위엄있는 거동보니 한나라 관리보는듯  
공로높아 종조되니 시조의 고향이라네  
고운은 하나의 여지지와 같다 했으니  
《중이 바둑두며 대낮에 한가하네》시구와 같네

이 시는 우리 나라 한자시문학의 《시조》이며 시로써 나라를 빛내인 최치원(857-?)을 평한 제1수이다.

주석에서는 리규보의 《백운소설》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하고있다.

《최치원이 당나라에 들어가 급제하여 개척의 공로가 있었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학자들이 다 종조로 여기였다. 그의 시에 <×××은 동으로 뻗어내려 오산이 푸르고 별자리는 북으로 흘러 은하수가 누르구나>라는 구가 있는데 동년배인 고운이 <이 시구는 하나의 여지지(지리지)이다.>라고 하였다. 학사 박인범, 참정 박인량도 시로써 국내에 이름을 날리었는데 우리 나라의 문헌이 중국에 통하게 된것이 이 세사람으로부터 시작되였다. 참정 박인량의 시에 <문앞에서 길손이 젖는 노에 물살이 빠르고/ 대숲에서 중은 바둑두며 대낮에 한가하네>라는 구는 자못 아름답다.》

주석을 통하여 이 시가 최치원과 박인량에 대하여 평가한 시이며 리규보의 《백운소설》에 근거하여 창작된것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시는 1련에서 한자시문학의 개척자인 최치원을 극구 찬양하고있으며 셋째 구에서는 최치원과 동년배이며 가까운 시우였던 중국의 시인 고운이 최치원의 시를 평가한 말과 박인량의 시 《사신으로 송나라에 가며 사주구산사를 지나며》속의 세번째 구인 《중이 바둑두며 대낮에 한가하네》를 인용하여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두 이름난 시인의 창작수법이 유사하다는데 대하여 평하였다.

제2수에서는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인 리제현(1287-1367)의 문학사적공적과 지위를 논하였다.

이 시의 주석에서는 고려 26대왕 선효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을 때 리제현이 우집, 조맹 등 그곳의 유명하다고 하는 4학사와 더불어 서로 시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찬탄을 받았던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있다.

신위는 이 시에서 문장으로 나라를 빛내이고 우리 나라 시문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리제현을 내세우고있다.

신위는 제24수에서 차천로와 관련한 시화를 소재로 하여 중국에까지 문인으로서의 명성이 자자하였던 차천로(1556-1615)에 대해서도 평가하였다.

그는 《만리장성에 종이를 대니 나로 하여금 달리는 말우에서 붓을 휘두르게 하였다. 성에는 시간이 다함이 있었으나 내 시는 끝이 없었다.》라고 한 차천로의 말을 기록한 남룡익의 《호곡시화》에 근거하여 《만리장성 빨리 내달리는 말우에서/ 붓을 휘둘러 나의 기상 높고 큰것 숭상했네》라고 시의 1련을 구성함으로써 차천로의 지칠줄 모르는 창작적열정과 줄기찬 기백을 시에 담았다. 그리고 허균이 사신으로 연경에 들어갔을 때 그곳의 일판이 조선의 들에 규성이 희미하게 빛을 뿌리니 문인이 사망한것이 아니면 인차 사망할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차오산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였다는 《종남총지》의 시화를 함축성있게 인용하여 《속으로 거짓죽음이라고 웃음을 참았지만/ 문인성우에 응하는 사람이 있었네》라고 시의 2련을 구성함으로써 내외에 널리 알려진 차천로를 아끼는 당시 사람들의 애석함을 실감있게 전달하였다.

다음의 시는 정현과 권갑의 시와 그와 관련한 창작일화를 소재로 한 제26수이다.

정현의 《달빛밝고 련꽃향기 풍긴다》는 시구가  
어이 《남루의 고국 종소리》와 같은가  
안목있는 왜인도 부인할자 있으랴  
붉은 구름 무탈하게 푸른 채룡에 비꼈네

이 시에 대한 신위의 주석은 다음과 같다.

《정현의 〈부용당〉시에서는 〈련꽃향기 풍기고 달빛밝은 밤이로다/ 다시 옥통소 부는 그 누군가가 있어라/ 12곡 란간엔 잠에 취한 꿈도 없네/ 가을빛 짙은 벽성의 밤은 길고길구나》라고 하였으며 초루 권갑의 〈송경〉시에서는 〈찬 겨울의 달은 전 왕조의 빛이요/ 차디찬 종소리는 옛 나라의 소리로다/ 남루엔 시름이 외로이 깃들었고/ 남은 성곽엔 새벽구름 이 누나》라고 하였는데 련꽃향기, 달빛의 시구와 더불어 함께 이름났다.》

결국 시의 1련은 정현과 권갑의 시의 한구절씩 인용하여 두 시인의 예술적풍격이 서로 유사한것임을 밝힌것이라고 볼수 있다.

시는 2련에서 《어우야담》의 시화내용에 근거하여 략탈과 방화, 파괴를 업으로 하는 침략자들도 그 시의 가치를 알아서 남겨둘만큼 시재가 뛰어난 정현에 대한 찬탄의 감정을 여운있게 노래하였다.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파시한 시인들을 내세우고 자랑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그

의 비평활동은 남룡익의 《호곡시화》에 근거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 의주땅에 피난간 선조왕이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 피난가려고 할 때 한편의 시를 지어 선조의 처사를 막고 종묘사직을 위기에서 구원한 리호민의 의로운 충정과 뛰어난 시재, 시의 감화력을 평한 제28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시는 《하늘의 의사는 어쩔수없이 압록강물에 다달으고/ 조정의 제책은 처량하게도 석양을 마주했구나》라고 1련을 구성하여 이미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대세가 기울어지고 위기에 처한 조정의 한심한 형편을 함축성있게 전달하였으며 2련에서는 《강암의 재주가 다하였다고 말하지 말라/ 오봉이 보루를 끊은것도 한때의 드문 일》이라고 하여 량나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강암에 비유하여 오봉 리호민의 의로운 충정과 뛰어난 시재를 찬탄하였다.

신위는 제35수에서도 청나라의 유명한 문인인 왕어양이 김상헌(1570-1652)의 시를 본한 절구시를 지은 사실을 소재로 하여 다른 나라 문인들의 시평에도 올라있을 정도로 시재가 뛰어난 김상헌에 대하여 긍지높이 찬탄하고 있다.

신위는 자기의 시에서 왕어양의 시의 첫 두개의 시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1련을 구성하고 2련에서는 《마음속으로 왕어양의 문예담론에 감복하네/ 지금 중국에 속한 어려움을 두고》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문인의 비평에 김상헌이 당당히 한페지를 차지하고있는데 대한 격동된 심정과 민족적 긍지감을 토로하고 있다.

《동인론시절구》에 반영된 신위의 문학비평의 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문학사의 갈피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력대의 많은 시인들과 문학류파들의 문학사적지위를 높이 평가한것이다.

진정 성리학을 전하여 동방에서 으뜸이니  
절의는 당당하여 백대를 전해내려왔네  
문장과 재주를 겹했다 어찌 말하지 않으랴  
《비소리 요란한 판자지붕, 이른봄 매화핀 창가》

이 시는 성리학을 보급한 정몽주의 공적과 뛰어난 문장을 평가한 제4수이다.

신위는 주석에서 《정포은선생은 비단 성리학과 절의가 한세대에 뛰어나 으뜸일뿐 아니라 문장도 역시 호방기이하다. <매화 핀 창문가엔 봄이 이른데/ 판자지붕 비소리는 더욱 요란타> 인즉은 선생의 시이다.》라고 하면서 정몽주의 문학적개성에 대하여서도 논하였다.

신위는 시의 1구와 2구, 3구에서 정몽주의 공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4구에서 《비소리 요란한 판자지붕, 이른봄 매화핀 창가》라는 시구를 인용하였다.

이 시구는 《한평생 남북으로 헤매여다니며/ 내 마음 언제나 설레이고/ 고국은 아득한 바다 서편인데/ 외로운 배 하늘끝에 뗏구나/ 매화 핀 창문가엔 봄이 이른데/ 판자지붕 비소리는 더욱 요란타/ 이국에서 긴 해를 홀로 앓아보내니/ 내 어이 고향이 그리지 않으랴》(《한시집》 1권)라는 정몽주의 시 《홍무정사년에 사신으로 일본에 가서》에서 3련의 두개 구를 함축성있게 인용한것이다.

신위는 주석에서 이 시가 근거한 문헌이름을 명백히 쓰지 않았으나 그가 허균이 쓴 《성수시화》의 평을 참고하였다는것을 알 수 있다.

력대 문인들의 문학사적공적을 평가한 내용은 시 제21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갓 선비로 용케도 선발되어 종사로 불리웠네  
장차 몸이 증서성에 이른것과 무엇이 다르랴  
지금도 절창으로 전해지는 악부는  
송강의 가사와 석주의 시여라

시에서는 중세 우리 나라의 우수한 국문시가를 창작한 정철과 권필의 공적과 문학사적지위를 밝혔다.

시의 1련에서 시재가 뛰어난 권필에 대한 평가를 주었다면 2련에서는 우리 국문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민족의 자랑인 국문시가와 그 창작가들을 적극 내세우려고 하였다. 그리고 주석에서 명나라 사신이 왔을 때 한갓 선비였던 석주 권필이 백의종사로 선발되었다는것과 선조가 그를 불러들여 그가 지은 시를 시고에 넣게 한 사실을 밝히고 권필이 지은 시 《정송강묘를 지나며》를 천고의 절창으로 평하였다. 주석에서 인용한 권필의 시 《정송강묘를 지나며》는 《빈산 잎떨어진 나무엔 비가 우수수/ 상국의 풍류는 이렇듯 적막해라/ 슬프다 한잔 다시 드리기 어려우니/ 그 옛날 가곡이 지금도 남아있네》이다. 신위는 자기의 시에서 정철의 시에 대하여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주석에서 권필의 시를 통하여 그들의 재능과 함께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부각시키려 하였으며 동시에 국문시에 대한 자기의 긍정적인 입장을 암시하였다.

신위는 《해동강서파》, 《3당》시인 등과 같은 문학류파들에 대해서도 그 지위를 높이 평가하였다.

제16수, 17수는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학문 다음가는 재주 한시대를 논한다면  
용재가 바로 깨달아 심오한 경지에 들어갔네  
해동에도 강서시파가 있었으니  
《로수》, 《춘음》을조린 읍취헌나라네

이 시는 용재 리행과 읍취헌 박은의 시재를 평가하는것과 함께 16세기 우리 나라 시문단에 존재하였던 문학류파에 대하여 논한 제16수이다.

신위는 박은과 리행의 시풍이 소식과 황정견, 진사도 등으로 대표되는 《강서시파》시인들의 시풍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한수의 시속에 담아 당시 우리 나라에 《해동강서파》가 있었으며 그것이 이름있는 박은과 리행으로 대표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문학류파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신위는 1련에서 리행을 평하고 2련의 첫번째 구에서는 《해동강서파》의 존재를 논하였으며 결국에서는 그 문학류파의 중심인물인 박은에 대하여 논하였다. 끝구의 《로수(늙은 나무)》와 《춘음(봄날 흐린 날씨)》은 박은의 시 《복령사》에서 3련 《봄날 흐린 날씨 비오려 하니 새가 지저귀고/ 늙은 나무 무정하니 바람도 슬퍼하네》에서 《봄날 흐린 날씨》와 《늙은 나무》의 시어를 따내어 인용한것이다.

주석에서 그는 허균의 《성수시화》에 근거하여 《우리 나라의 시는 마땅히 용재 리행의 시를 제일로 한다. 그의 시들은 시상이 웅심깊고 순후하며 화평하고 담담하며 맑고 순수하고 로련하였다. 그의 5언고시들은 두보에게 들어가서 진사도에게서 나와 시상이 높으면서도 소박하고 간결하면서도 무게있다.》라고 하면서 리행의 재능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남

룡익의 《호곡시화》를 통하여 박은의 시재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신위는 제17수에서 최경창(1546-1590), 백광훈(1537-1582), 리달(1555-?)과 그들의 시풍의 근원으로 되는 김정(1486-1521)에 대하여서도 평가하였다.

재주를 떨쳤네 3당시인 최, 백, 리  
근원을 거스르니 충암에게서 풍조 시작됐네  
후세에 《깊은 사원, 외로운 배》시구 전하니  
돌연히 《살구꽃 보슬비 주렴처럼 드리우네》

신위는 시의 첫 두개 구에서 후세에 《3당》시인으로 이름을 남긴 재능있는 시재들과 그들의 시풍의 근원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세번째 구에서는 리달의 시구를, 결구에서는 충암 김정의 시구를 인용하여 그들의 시적재능을 보여주었다.

시의 세번째 구는 주석에도 있는바와 같이 리달의 시 《호사의 중의 시권의 운을 따라》의 2련 《병든 길손의 외로운 배는 밝은 달아래 있고/ 로승의 깊은 사원엔 락화가 쌓였도다》의 구들에서 《외로운 배》와 《깊은 사원》만을 따내어 인용한것이며 마지막결구는 김정의 시 《강남시》에서 마지막련 《락화와 보슬비 주렴처럼 드리우네》에서 《락화》를 《살구꽃》으로 바꾸어놓은것이다.

이 시는 《3당》시인들의 재능과 함께 당시의 한자시풍을 새롭게 전환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그들의 문학사적지위를 평가한것이다.

이처럼 신위의 《동인론시절구》는 력사에 이름을 남긴 우리 나라 력대 시인들의 창작적재능을 공정한 립장에서 비교적 옳게 평가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문학사와 비평사연구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비평유산이다.